

4) 내원 당시 29예(38.2%)에서 신기능 저하를(혈청 creatinine  $\geq 1.5$  mg/dl)보였으며 24시간 뇨검사상 3.5 g 이상의 단백뇨를 보인 경우가 23예(30.3%)이었다.

5) 혈액학적 이상이 있었던 경우는 74예(97.4%)이었고 그중 빈혈이 69예(57.3%)로 가장 많았으며 빈도순으로 임파구감소증(63.2%), 백혈구감소증(36.8%), 혈소판감소증(35.5%)이었고, 적혈구 침강속도 상승이 74.4%에서 있었다.

6) 신조직 검사를 시행한 34예의 WHO 분류방법에 따른 병리소견은 class IV 21예(61.8%), class III 6예(17.6%), class V 5예(14.8%), class II 1예(2.9%), 그리고 혼합형(class IV+V)이 1예(2.9%)이었다.

7)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46예 가운데 10예가 사망하였고, 이들 중 6예는 내원 당시 24시간 뇨검사상 3.5 g 이상의 단백뇨를 보였으며, 사인은 폐부종(3예), 감염(3예), 뇌졸중(3예), 폐출혈(1예) 등이었다.

—35—

### 전신성 홍반성 낭창 환자에서 피부 생검 소견과 임상지표와의 상호관계

경희의대 내과

오 동 환 · 이 태 원

임 천 규 · 김 영 재

저자들은 1979년 5월부터 1988년 3월까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전신성 홍반성 낭창으로 진단받은 34명을 대상으로 피부 생검을 시행하여 현미경적 소견과 면역형광 침착도를 관찰하고 이를 임상지표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1) 피부 생검상 면역글로불린 및 보체가 진피와 상피 경계부위에 침착된 예는 34예중 19예(56%)였고 많이 침착된 순서로는 C<sub>1</sub>q, IgG, IgM, C<sub>3</sub>, IgA였다.

2) 피부생검상 현미경 소견에서 활동도를 기저층의 변성정도, 진피 상피 경계부의 와해정도, 염증세포의 침투 정도를 점수로 주고 면역글로불린 및 보체의 침착도는 Zero에서 3까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들 평균 활동도는 2.2였고 침착도는 0.84였다.

3) 피부생검상 면역글로불린 및 보체침착도는 현미경적 활동도와 상관관계가 없었고 활동도와 혈청 creatinine과는  $r=0.36$   $t=2.12$   $p<0.05$ 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피부생검상의 활동도나 침착도는 혈청보체, 단백뇨 정도, 신장조직검사상이 활동성 지표 및 만성지표와 의미있는 관계는 없었다.

4) 34예의 피부생검환자중 신장조직 검사를 병행한 13예중 미만성 증식성 사구체 신염이 8예, 그 이외의 사구체 신염이 5예이었는데 이 양군간에 피부생검상 면역글로불린 및 보체침착도와 현미경적 활동도는 차이가 없었다.

—36—

### 낭창성 신염환자에서 단백뇨의 임상적 의의

연세의대 내과

정동균 · 김미림 · 함영환

최규현 · 하성규

이호영 · 한대석

저자들은 1979년 1월부터 1988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1982년 미국 류마티즘학회에서 정한 전신성 홍반성 낭창 진단 기준에 부합되었던 182예중 24시간 뇨검사상 500 mg 이상의 단백뇨를 보인 76예를 대상으로 단백뇨 정도에 따른 임상소견 및 경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환자는 단백뇨의 정도에 따라 3군으로 구분하였으며 평균연령 및 남녀비는 1군(500 mg/d  $\leq$  뇨단백 < 1 g/d, N=14)이 24.9세 1:13, 2군(1 g  $\leq$  뇨단백 < 3.5 g, N=39)이 31.9세 1:6.8, 3군(뇨단백  $\geq$  3.5 g, N=23)은 30.3세 1:6.7이었다.

2) 각 군별 24시간 뇨단백양은 1군이 716.5  $\pm$  111.7 mg/d(mean  $\pm$  SD), 2군이 1990.9  $\pm$  634.4 mg/d, 3군이 8874.4  $\pm$  5098.3 mg/d이었다.

3) 각 군별 신장기능은 내원당시 혈청 creatinine이 1군이 1.40  $\pm$  1.03/dl(mean  $\pm$  SD), 2군이 1.70  $\pm$  1.74 mg/dl, 3군이 1.80  $\pm$  1.30 mg/dl로서 단백뇨가 심할수록 신기능 저하도 심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p>0.05$ ).

4)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42예에서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28.43  $\pm$  26개월(range 3-115)이었으며, 최종혈청 creatinine은 1군에서 2군과 3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5) 단위 시간당 혈청 creatinine의 변화는 각 군간에